

‘붕괴’된 디지털 미술의 미래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때 ‘NFT’(대체불가능토큰)는 디지털 시대 예술의 등기부등본이라 불렸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가상 환경에서 ‘유일성’을 부여한다는 논리는 매혹적이었고, 2021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마이크 윙켈만(Beep! e)의 작품이 약 7,000만 달러에 낙찰되자 세상은 이를 ‘디지털 르네상스’의 서막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NFT로 생성한 후 원작을 소각하는 식의 극단적인 광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과 지만 NFT 미술작품이 자생적 미학 가치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예상보다 일찍 나타났으며, 디지털 미술의 미래라고 불리던 NFT 시장은 불과 몇 년 만에 거래량이 90% 이상 급감하며 붕괴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디지털 파일이 물리적 회화를 대체하고 NFT를 통한 미술사적 맥락의 전환을 촉발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격적으로 NFT 영역에 진입했던 바이비트(Bybit) 등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수익성 악화로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NFT의

대중화를 견인했던 전문 마켓플레이스 다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또한 운영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장 영향력을 상실했다.

NFT가 내세운 핵심 가치는 ‘원본의 증명’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은 미술작품 자체가 아닌 특정 서버의 경로를 가리키는 ‘토큰’에 불과하다. 즉, NFT는 태생적으로 블록체인 상의 토큰화된 메타데이터이며, 디지털 이미지 소유권만 제공할 뿐 작품 자체의 내용이나 미학적 완성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실 NFT에 대한 열광은 자본주의의 욕망의 크기와 비례했다. 작가도 수집가도 그랬다. 그러다보니 감상의 대상이어야 할 작품은 금세 ‘플리핑’(단기 전매 차익)의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커뮤니티의 결속력과 유명 인사의 언급 한 줄이 작품의 질보다 우선시 되었다. 냉정히 말하면 그것은 예술 시장이라기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카지노’에 가까웠다.

예술사의 거대한 전환은 언제나 기술이 아닌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르네상스는 원근법이라는 도구에 앞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옹립시켰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모더니즘은 재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술의 자율성을 선언했기에 혁명적이었으며, 1960년대 개념미술 또한 물질적 결과물

보다 사고의 구조를 예술로 정의하며 기존 가치 체계를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반면 NFT는 소유의 기록 방식만 바꾸었을 뿐, 예술의 정의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여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아니, 처음부터 예술이 NFT를 통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NFT라는 기술로 돈을 벌기 위해 예술이 ‘소모성 콘텐츠’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였기에 그럴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게 맞다.

물론 코드 기반의 생성 예술(Generative Art)처럼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거대한 투기 광풍 속에서 순식간에 휘발되었다. 여기에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민팅(minting),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자전거래, 그리고 불투명한 내부자 거래 등은 기술이 약속했던 ‘신뢰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파괴했다. 그러자 기술이 예술적 성취를 자동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와해됐다.

기술만으로 미학을 대신할 수 없다. 예술의 생명력은 기술적 증명이 아니라 미학적 밀도와 시대적 통찰, 그리고 비평적 논의에 서 나온다. 제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미술평론가

오늘의 운세 2월 4일 (음 12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60년생 마찰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72년생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84년생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96년 생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61년생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73년생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85년생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97년생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62년생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74년생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86년생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98년생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63년생 당장은 마찰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75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87년생 한 번쯤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99년생 가능하면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64년생 오늘은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76년생 지금은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88년생 당장은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0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65년생 한 번쯤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77년생 가능하면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89년생 오늘은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1년생 지금은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66년생 당장은 마찰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78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90년생 한 번쯤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02년생 가능하면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67년생 오늘은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79년생 지금은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91년생 당장은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3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68년생 한 번쯤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80년생 가능하면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92년생 오늘은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93년생 지금은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69년생 당장은 마찰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쪽이 갈등을 줄임 81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 안정에 도움 93년생 한 번쯤 관계에서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쪽이 갈등을 줄임 05년생 가능하면 지출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70년생 오늘은 업무 흐름은 강도를 낮추는 편이 갈등을 줄임 82년생 지금은 컨디션은 뒤로 미루는 관리가 안정에 도움 94년생 당장은 동선은 정면보다 우회하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6년생 이번엔 정리는 선택지를 좁히는 공부가 안정에 도움



71년생 한 번쯤 아이디어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접근이 갈등을 줄임 83년생 가능하면 마음은 상황을 관망하는 쪽이 안정에 도움 95년생 오늘은 가족과는 강도를 낮추는 선택이 갈등을 줄임 07년생 지금은 사업은 뒤로 미루는 전략이 안정에 도움

기술 혁신이 불러온 갈등… 피지컬 AI 변화 흐름인가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최근 배포한 소식지에는 이같은 문장이 담겨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피지컬 AI 관심이 급격히 커지며 현대차, 테슬라 등 테크 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로봇을 개발하고 도입하려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선전포고에 가깝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6에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전환을 언급하자 이를 둘러싼 불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노조가 이처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도입에 따른 단순한 자동화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차가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 혁신을 강조하지만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도 로봇에게 한순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는 과거 현대차가 걸어온 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 자동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신형 i30를 출시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 자동화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 74명을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했

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약 한 달간 생산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현대차가 해외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자 국내 노조는 일찌감치 변화에 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사용은 고령화된 생산 인력 구조, 숙련 인력 부족,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면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 로봇 시대의 고용 안전망과 전환 노동에 대한 보상 등 미래 인간 중심의 로보틱스로의 안정적인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ysw@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복을 부르는 입춘기도



올해 입춘은 양력 2월 4일이다. 겨울 추위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릴 때 새로운 절기인 입춘이 찾아온다. 글자를 보면 입춘의 뜻은 봄이 선다는 것인데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로, 이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되니 자연의 기운이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운이 일어선다는 뜻을 지닌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해의 양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입춘기도를 드렸다. 만물이 소생하고 우주의 기운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기도를 드리면 간절한 소망이 천지에 쉽게 닿고 효험이 크다. 입춘기도의 중요한 염원은 액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입춘 절기의 정화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묵은 해의 탁한 기운이나 지난날의 불운이 깨끗이 정화된다.

입춘기도 후에는 마치 대청소를 마친 집처럼 마음과 삶의 공간에 길운이 짓들 여유가 생긴다. 입춘 즈음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문구를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이유도 복을 불러들이고 경사를 맞이하겠다는 기도의 마음을 시각화한 것이다. 입춘기도는 좋은 기운을 집안과 개인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 효험 좋은 통로가 된다.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마련이다. 시험 합격을 빌면 공부 할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되고, 사업 번창을 빌면 경영 아이디어 발굴에 더 매진한다. 그렇게 기도는 하루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입춘기도는 복을 부르는 의식이면서 복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니 입춘에 뿐인 기도의 씨앗은 봄의 생명력과 만나 올 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 입춘에 올리는 정성 어린 기도가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힘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847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951 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